UAP (Universal Availability of Publications) 사업의 효율화와 도서관 발전

1. UAP의 概要

배 순 자
전주대 도서관학과·전강

1. UAP의 意義 및 目的

a. 意 義

오늘날의 인류사회는 존재하고 교류하는 방식에 있어 그 매체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 정보라고 하는 무서운 권력가를 등장시켰다. 이 정보는 현대 사회의 主要 資源으로 취급되어 지금까지 대표되어온 기본 三大자원인 노동, 자산, 물자와는 보다 다른 의미와 기능으로써 현대 사회를 움직이고 있다.

인류의 역사는 그동안 물리적 힘에서 정신적 힘으로 전환되어 와 다시 정보의 힘으로 전환되는 場에 있으며 이 정보의 힘이란 정보에의 접근路를 파악하고 정보를 가릴 줄알고 해석, 활용할줄 아는 능력을 말하며 이 능력은 곧 그것의 소유자로하여금 가장 진정한 의미의 능력가로 만들고 있다. 이러한 변모된 현대 사회의 존재와 교류방식은 필요한 정보의 범위와 획득 방법에 있어서도 상당한 변화를 주게되므로 자료에 대한 인식과 이용은 국경을 초월하여 넘나들게하는 범위로까지 확대되었다.

UAP란 곧 이러한 현대적 추세에 의해 발생된 것으로 도서관이나 각종 정보자료 시스템들이 그들의 최종 목표로 삼고 있는 UAI (Universal Acess to Information)의 실현을 위한 것이며 하나의 개념이자 목적이며 계획이기도하다.

UAP의 개념은 "전 세계의 모든 출판물의 입수와 전 세계로의 출판물 공급[1]"을 의미하며 UBC (Universal Bibliographical Control)와 더불어 UNISIST (the World Information System)의 실천과 NATIS (National Information System) 개념의 실현을 위한 것으로 현대 도서관이 갖는 유일한 근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수 사항이라할 수 있다.

UAP가 갖는 용어의 의미를 보면, Universal은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다는 의미로써 정보의 전달과 입수에는 정치적, 종교적 이념의 국경이 초월된다는 뜻이다. Availability란 전 세계적으로 산재해 있는 필요한 자료를 원본으로나 복사로나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 두자는 뜻으로 전 세계의 자료를 실제로 입수하자는 것보다 이용이 가능한 조건으로 만들어 놓자는 의미를 뜻하며, 자료의 발행,배포, 수서, 공급과 미래의 공급을 위한 보관까지의 업무가 포함된다. 또한 Publications는 公共의 이용을 목적으로 표현된 各種의 기록된 정보매체를 말하며 原자료에서부터 grey literature및 各種 시청각자료와 콤퓨터자료에 이르기까지의 모든 자료의 범위를 갖는다.

b. 目 的

오늘날에 와서는 도서관의 운영에 있어 가장 주요한 사업이라면 이용자에 대한 도서관 존재의 인식활동을 들기보다는 (이 문제는 이미 도달된 상태라고 본다)산재해 있는 수 많은 정보자료를 인식하고 그 중 필요로하는 자료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는 것을 말한다. 이용자가 서지를 통해 알게된 자료를 필요로 하는데도 그에게 그 자료를 제공해줄 수 없다면 도서관으로서의 의미는 상실되고 말 것이다.

필요한 자료의 이용 주선은 곧 도서관의 존재 의의를 가능하게하는 기본적 기능이며 이 근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사항이 요구되어지는데, 첫째는 어떠한 기록물이 있는가를 인식하여 필요한 자료를 발견하는 것이며, 둘째는 이러한 자료를 획득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UAP의 최종 목적은 바로 이 근본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것으로서, 공중의 이용을 목적으로 발행된 모든 기록된 지식자료중에서 경제적, 사회적, 교육적 및 개인적 발전을 위해 필요로 하는 자료가 있다면 어떤 개인이던, 언제 어디서 그것을 필요로 하더라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해두자는 데에 있다.

2. UAP사업의 발생과 전개

a. 발 생

UAP사업의 발생은 오늘날의 학문하는 방법과 국제간의 공동협력 증진 및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수반되는 지극히 자연적인 현상이었다.

여러가지의 필요로 인해 발생된 지식 및 정보에 대한 요구가 점점 국가의 범위를 넘게되므로 국제간의 자료의 넘나듬이 처음에는 관계있는 도서관끼리 이루어지는 개인적 국제대차로써 시작되었으나 해를 거듭할수록 그 의존도가 늘어

나 종래에는 도서관 자료봉사의 의미까지 바꾸어 놓았다. 즉 현대적 의미의 자료봉사는 그 범위를 관내의 소장자료를 제공하는 것에만 한하는 것이 아니라 관외로까지 이용영역을 넓혀 국제간에 있어서도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자료에 이용자들로 하여금 접하도록 할 것인가에 치중하게 되었다. 따라서 국제대차를 위한 좀 더 효율적이고 용이한 방법을 찾을 수 있는 체계적인 조직을 필요로하게 되었으며 뿐만아니라 한편으로는 UBC사업으로써 전세계의 자료를 더욱 용이하게 알 수 있게 되므로써 UAP개념에 대한 욕구가 자연적으로 발생하게된 것이다. 이에 더 이어 국가간의 조정과 공동협력이 증진되므로 정보자료의 국제적 교류가 용이해지고 기계 기술의 발달로 인해 국제간의 간격이 좁혀지므로해서 UAP에 대한 개념은 점차 하나의 목적이자 사업으로 구체화하게 되었다. 지난 몇년동안의 서지통점의 발달은 각종 서지의 접근에 있어서 質과 類型 및 속도를 크게 나아지게했으며 이러한 현상이 출판물에 대한 수요를 더욱 급증시켰다. 이러한 모든 상황들은 UAP가 하나의 개념에서 사업으로까지 발전되는 데에 충분한 이유와 요인이될 수 있었다.

UBC와 더불어 Unesco의 UNISIST와 NATIS의 실현을 위한 주요 사업으로 구체화된 UAP 사업은 Unesco의 전적인 후원으로 IFLA에 의해 실천되는 하나의 장기 계획으로 포함되었다.

1973년에 시작된 UNISIST 사업이 이 UAP 개념을 하나의 계획이자 사업으로 구체화시키는 데에 결정적 요인이 되었으며, 이 개념이 전 세계적인 관심거리로 대두하게된 최초의 공식적 움직임은 1974년 "국제대출과 종합목록"에 관한 IFLA의 위원회가 열렸을 때 제출된 입안서에서 부터이다. 당시의 설정된 목적은 상호대차 업무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증대시키고 간단하고 효율적인 절차를 증진시키므로써 출판물에 대한 접근율을 증대시키자는 데에 있었다. 이후 몇년동안 이 문제를 IFLA의 협의회에서 논의되어 오다 IFLA에서 1976~80년의 중간기 사업계획으로 책정이 됨으로써 Unesco의 승인을 얻게되었다. 이로써 UAP사업은 IFLA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는 도서관 및 서지 정보활동 분야의 국제 활동사업에 포함되고 있는 주요 사업의 하나가 되었다.

UAP사업은 UAI의 실현을 위한 UBC의 후속 사업이긴 하지만 UAP로 연결되지 않는 UBC 사업이란 사실 아무런 의미가 없으며 그것에 대한 적극적 노력도 좌절될 것이다.

도서관인의 정보봉사 업무는 정보자료에 대한 안내(소개)만이 아니라 필요로

하는 자료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는데까지이며 그럼으로써 최종적인 임무를 다 하는 것이다. 따지고 보면 UAP사업이란 도서관의 가장 기본적 기능을 확장시킨 것으로서, 필연적으로 발생되어진 도서관 활동의 하나라고할 수 있다.

b. 전 개

UAP개념이 점차 구체화되어 사업화가 됨에 따라 IFLA에서는 이의 진행을 위해 1975년 Boston Spa의 B. L. L. D.에 국제대출사무국을 설치하고 (IFLA office for International Lending) 78년에는 77년의 실험 단계를 거친 바 있는 운영지침서를 마련하였다.

UAP사업을 위해 조직된 기구로는 IFLA에서, 1977년 운영위원회를 조직한 것을 비롯하여 1979년에 자문위원회를 조직하고, '80년에는 국제사무국(International Office for UAP)을 공식적으로 설립한 것이 있다. 이 사무국의 설립으로 인해 UAP 사업은 도서관을 초월하여 출판인 및 문서관리 전문인과 정보관리 분야의 각 개인들에게까지 그 대상 영역이 확장되어 졌다.

또한 Unesco및 여러 국가 단체에서도 UAP사업의 진행에 필요한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는데 특히 Unesco에서는 UAP사업이야말로 그들의 근본 사명인 전 세계를 한 무대로한 과학, 기술, 문화의 발전을 가능케 하는 수단으로 간주하여 1978년 이래로 이 사업을 전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Unesco에서는 이 사업을 그의 장기사업으로 정하여 1978~80의 예산 책정에 포함시켰으며 특히 UAP 사업에 관한 국제회의 및 과학적 연구를 추진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지원을 하고있다.

Unesco의 주선과 지원에 의해 개최된 대표적인 주요 국제회의로는, 1982년 5월 3일~7일까지 5일동안 파리에서 열린 "The Unesco/IFLA International Congress on UAP"[2] 가 있다. 이 국제 모임에는 65개 국으로부터의 약 200명이 넘는 사서를 비롯한 문서관리인, 정보관리인, 출판인, 도서판매인 및 정부관리의 대표들이 참석하였다. 이 모임의 개최 목적은, 출판된 정보자료의 입수 이용의 범위와 성격에 관해 좀더 많은 주의를 환기시키고 출판물 이용을 향상시키기 위한 여러 사항을 검토하고 실행 방법에 대한 분석적인 평가를 밀도있게 논의하고자 함이었다. 이 회합에 이어 이튿날인 5월 8일~10일에도 역시 Unesco의 재정적인 지원아래 개도국들간의 세미나가 개최되어 의회에서 논의되었던 사항을 보다 더 분석적이고 구체적인 방법으로 토의하였으며 특히 개도국과 관련된 UAP사업의 필요성과 그것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을 연구하였다.

이 외에도 1982년 6월 7일~11일에는 London에서 "The Unesco World Con-

gress on Books"가 개최되어 그 회의에서 UAP사업에 관한 내용이 토의사항중의 하나로 채택되어 논의되기도 하였다.

Unesco에 의해 마련된 이 두 대표적 국제회의가 있기 이전 1982년 4월20일에는 네델란스 암스텔담에서 출판인들과 사서들간에 비공식 국제모임을 가져 UAP사업의 필요성을 지적하는 결의안을 채택한 바가 있으며 이 결의안은 前記의 두 국제회의에 제출이 되었었다

이처럼 UAP는 그 개념부터가 필연적이고 자연적 현상으로 발생되어져 하나의 국제사업으로 구체화되므로써 그것에 대한 진행작업은 현재 분명한 틀을 가지고 움직이고 있다. 그러나 한편 이 사업은 전세계를 포함 범위로 하고 도서관의 전업무를 관련 활동으로 요구하기 때문에 이의 성공적 실현이란 실로 간단한 일이 아니며 시행착오의 경우가 많을 뿐아니라 그 수정기간 또한 길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하나의 이상으로 끝나버릴 사업일런지도 모르긴 하다. 그러나 특히 영국과 소련을 비롯한 발전 국가들이 이 국제사업에 적극 참여 노력하고 있으며 FID및 International Council of Archires등과 같은 국제기구들의 적극적 협력이 진행되고 있으므로 이 UAP 사업은 그 성공적 실현이 예견될 뿐아니라 꼭 실현되어야할 주요 과업이라 하겠다.

Ⅱ. UAP사업을 위한 제활동

UAP사업은 범위로는 국제간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활동이며 방법으로는 도서관 및 정보센타의 운영에 필요한 전업무가 포함되는 사업이니만치 이 사업을 시작하기 이전, 이미 이루어져 있어야할 많은 전세사항들이 필요하며 동시에 진행됨으로써도 도서관계에 남겨지는 여러 이로운 결과가 있기 마련이다.그러므로 실로 방대한 이 국제사업은 각 국가내의 도서관 관계 제문제에 대한 현상을 파악하게하고 나아가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을 진단하게 하는 좋은 계기를 마련해 준다. 특히 이 사업을 위한 준비 과정에서나 진행 과정에서 적지않은 작용을 하게되는 여러가지 사항을 찾아내어 그들이 UAP 사업과는 어떤 관계로 이어지며 또 그것이 도서관계의 발전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봄으로써 UAP 사업과 도서관 발전과를 관련지을 수가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전제로서 필요한 사항들은 UAP사업의 진행 이전에 이미 정상화되어 있어야 함을 의미하지만 이들제사항이 만약 구비되어 있지 못했다면 적어도 이 사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는 해결이 되어져야할 요건들이기 때문에 UAP 사업의 효율화를 위한 도서관 제활동은 역으로, UAP 사업의 효율화로써 얻어지는 도서관계의 발전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앞서 말한 바 있지만 UAP사업은 포함하는 범위나 그 방법이 간단하지 않기 때문에 전제 사항으로나 또는 결과로 영향을 입게되는 부분이 적지 않으나 그중 특히 주요 사항만을 찾아내어 서로 연결시킴으로써 UAP사업의 효율에 따른 도서관의 발전을 알아 보고자 한다.

1. UAP 사업과 국가도서관

국제간의 자료유통은 먼저 국가내에서의 자료유통이 현실화되어 있어야함을 전제로 한다. 적어도 한 국가내에서의 전 출판물 이용이 가능할 수 있어야 국제적 범위로까지 그것의 확장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국내적, 국제적 자료유통의 가능을 위해서는 우선 국내 도서관간의 자료유통을 위한 협력과 조정을 책임, 지휘할 수 있는 국가적 기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 국가적 기관은 그 국가내에서도 주요한 위치에 있어야함은 물론이거니와 더 나아가 국제적 UAP사업의 무대에서는 그 국가를 대표하여 그 국가에서 맡아야할 임무를 책임질 수 있는 기관이어야한다.

이러한 국가적 기관을 마련하여 적어도 그 국가내의 자료들을 중앙 집중식 시스팀으로 유통이 가능하도록 해야하며 (여기서는 이용이 빈번한 자료와 요구가 거의 없는 자료들을 특히 책임지도록하는 것이 더 효용적일 것이다.)UAP 사업의 참여에 있어서는 그 국가내의 출판자료를 책임지게 한다.

이때 지정되는 국가기관으로는 국립중앙도서관이나 국회도서관 또는 그 외의 국가적 정보센타가 가능할 수 있으며 그 국가의 납본권을 갖고 있다면 역할수행이 더욱 용이해질 수 있을 것이다. 만약 이런 기능을 할 수 있는 국가적 기관이 없는 경우에는 대표적인 대학도서관에서 이 기능을 대신 맡게할 수도 있을 것이다. 또한 UAP사업을 위해서는 도서관인, 출판인 뿐만아니라 정부의 정책수립가들의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앞서 말한 바대로 각국의 국가적 기관이 UAP사업에서 그 국가내의 전 출판물 보급을 책임지고 국제적 조정 역할을 할 수 있기 위해서는 그 기관은 본국에서도 대표적 도서관이어야하며 주요 기능으로는 국가적 공동협력 체제와 국내 출판물 이용의 중앙화를 주선하고 책임을 져야함을 강조한다. 그러므로써 자연 UAP사업의 前提인 국내 출판물 이용의 가능이 현실화될 뿐아니라 오늘날 도서관계에서 절실히 요구되어지며 적극적 노력을 하고 있는 정보자료의 국가적 유통발전을 위해서도 큰 기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2. UAP사업과 정부

도서관 발전은 도서관 관계 종사인들에게만 그 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국가의 정책수립가 및 정부로부터의 관심과 지원에 의해 결정적 영향을 받는다. 도서관 관계법은 도서관 발전에 있어서는 기초와 촉진제가 되며 특히 UAP 사업에 있어서는 그 진행에 절대적 영향을 미치는 각 국가마다의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제도나 법을 조정하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UAP사업은 국제간의 활동이기 때문에 실제 이 사업을 진행시키는데 있어서 국가마다 근본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제도나 법규는 경우에 따라서 상당히 큰 어려움을 초래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문제는 도서관인들 만으로는 그 조정과 해결이 불가능하며 정부적 차원에서의 개입으로써 상호 조정을 필요로한다. 굳이 국제적 문제가 아니드라도 국내도서관 사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검열문제나 저작권 및 납본권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도 정부적 차원에서의 지원을 절대 필요로 한다. 실제 국내적 수준의 도서관 발전을 위해서도 이러한 문제들의 해결을 일차적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하는 효수 과제중의 하나이다.

국가내의 도서관 관계의 문제가 정상화되어 있지않고는 국제적 활동은 전혀 불가능한 일이며 더우기 UAP사업의 事前 작업인 국가서지의 마련 및 그외 국내 출판물 이용의 현실화를 위한 여러 조건들은 그 국가의 저작권법과 납본법에서 결정된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니다. 뿐만아니라 실제 조사 결과[3]에서 밝혀진 바에 의하면, '국제간의 자료유통시 소요되는 시간은 국가간의 거리보다 그 국가의 우편제도에' 전적으로 달려 있다고한다. 정보의 효율적 전달을 도서관의 기본 기능으로 삼고 있는 오늘날의 도서관 입장에서, 효용자료의 기본 요건인 適時性을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이러한 우편제도상의 문제 역시 도서관측의 노력만으로는 해결이 힘든 사항이라 하겠다.

사실 오늘날 정보의 능력과 위력을 재삼 고려해 본다면 누구나 인정하겠지만 그 국가의 경제적, 사회적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해서라도 각 정부에서는 도서관 활동에 대해 재정적 지원 및 정책적인 고려를 하므로써 도서관계의 여러 계획이 실제 행동으로 효율적인 전환이 되도록해야 할 것이다. 뿐만아니라 도서관 사업을 위한 여러 국제회의는 도서관인들만의 모임이 될 것이아니라 정부적 기관을 유도, 참석시킴으로써 각 국가간의 제도상 문제가 용이하게 조정됨이 가능하도록 해야할 것이다. 특히 이런 국제적 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에서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UAP사업은 결코 도서관 관계인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 어떤 종류의 국제 교류활동보다 국가기관이나 정부측에서의 노력이

주어져야하는 것으로 본다.

적어도 지식의 국제적 교류에 있어서는 정치적이거나 종교적인 이념의 국경이 적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3. UAP사업과 국제 상호대차

지금까지의 국제 대출업무는 정작 요구는 크게 늘어 났으면서도 지원면에 있어서나 정책면에 있어서는 소홀한 관심을 받아 왔었으며, 특히 대부분의 개발도상국가에서는 이사업이 여유가 있을 때나 할 수 있는 이차적 도서관활동으로 여겨져 왔음은 사실이다. 그러나 시대의 급격한 변화에 따른 여러가지의 사회적 요구는 정보 이용자들로 하여금 실제 국내자료보다 국외자료에 더 많이 의존하게 되었으며 해마다 그 요구량의 비율은 높아가고 있다.

도서관 상호대차업무는 도서관간의 공동협력을 위한 여러 방법중 가장 오래되고 대표적인 방법이면서 UAP사업의 진행에 있어서도 또한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활동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으로 인해 정착될 수 있는 도서관의 제활동중 가장 큰 영향을 받는 대표적인 부분으로 들 수 있다.

UAP사업은 UBC의 후속사업이면서 UBC사업의 존재의의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UBC사업을 완결시켜 주는 유일한 방법이다. 오늘날 국제대출업무가 더욱 많은 관심과 지원으로 활성화될 수 있었음은 UBC에 대한 적극적 노력과 이에 따른 UAP사업에의 출발이 있었기 때문이다.

UAP사업을 진행시키기 위한 제 방안의 모색은 곧 국제상호대차의 현실화를 이룩할 수 있는 방안 모색이 되며 국제 상호대차야말로 UAP를 실현시킬 수 있는 대표적 방법이며 수단이라 하겠다.

현재 IFLA의 UAP사업 국제사무국이 국제대차업무를 전적으로 이행하고 있는 BLLD에 설치되어 있는 것은 바로 이들의 관계를 말해 주는 좋은 예라 하겠다. 뿐만아니라 BLLD에 있는 IFLA의 국제대출사무국에서는 1978년 국제상호대차의 절차를 위한 규정 및 지침서를 마련하였는데 이는 UAP사업 자체를 위한 본 업무는 아니지만 이 사업의 진행을 도울 수 있는 국제적으로 적용이 가능한 대표적인 실무라 하겠다. 이와같이 국제 상호대차는 UAP사업의 실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항으로써 이의 효율적인 이행은 곧 UAP사업의 효율적인 결과를 의미한다.

4. Grey Literature에 대한 서지 및 수집의 국가적 계획

UAP사업중에서 정규 판매로를 통해 입수될 수 없는 회색자료(grey literat-

ture)에 대한 국가 및 국제적 차원에서의 이용 주선은 상당한 비중을 갖는 주요 문제이다. 현재 BLLD에서 이들 자료에 대해 국제적 차원에서 서지조사 및 자료의 수집을 중앙화시키고자 적극 노력을 하고 있으나 이들 자료의 성격이나 출판 및 배포의 방법때문에 실제의 진행은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

회색자료(grey literature)란 準 출판물로서 거의가 상업적으로 구입될 수 없는 자료들이기 때문에 서지적 조사가 힘든 자료들이다. 대체로 여기에 포함되는 자료의 종류로는, 보고서자료·상품 선전자료·회의록·번역서·논문·公刊物 등과 그 이외의 인쇄되기 이전의 자료들을 들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연구 경향 및 전달 매체의 변화 현상은 자료의 형태와 배포방법이 이전과 같이 정규적으로만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여기에 포함되는 자료의 양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었다. 이로 인해 각 국에서는 국가적 차원으로부터의 보다 집중적인 서지조사 및 자료수집을 위해 노력해야할 필요가 절실해 졌다.

출판물의 전통적 보급은 대개가 상품화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작권제도로써 전 자료의 인식이나 수서가 용이해질 수 있으나 이들 회색자료에 대해서는 아무리 효율적인 납본제도를 갖춘다 하더라도 그 국가내의 전 자료를 이용가능의 상태로 만들기란 힘든 일이다. 이러한 종류의 자료들은 상품화되지 않을 뿐 아니라 납본제도나 저작권법의 포함 범위에 들지 않으므로 이들 자료에 대한 인식조차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물론 이들 유형의 자료중에는 국가서지에 포함되거나 나중에 정식 출판물에 게재되는 경우가 있긴 하나 실제로는 상당한 수의 자료들이 각종 서지에서 제외되고 있다.

일부 개발국에서는 이들 자료에 대해서 별도의 납본제도나 특별 정보유통 시스팀을 조직해서 자료확보에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 SIGLE System for Information on Grey Literature in Europe)과 International Atomie Energy Agency in Vienna등과 같은 국제적 차원의 중앙화제도를 위한 기구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BLLD에서는 1963년 이래 이들 자료들을 전적으로 입수하는 특별부서를 마련하여 적극적인 자료 확보에 노력하고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한 서지조사 및 수집문제가 UAP사업에서 주요 관심사로 되기에는 상당한 이유가 있다. 즉 UAP사업과 같은 국제적 자료유통 계획을 실제로 많이 필요로 하는 분야가 과학기술 분야인데 이 분야의 자료들은 대부분 이러한 유형으로 발행 배포되기 때문이다.

英國과 美國에서는 이들 자료들을 각 종류별로 독립 구분하여 그 자료들의 수집과 배포를 전담하는 기관이 있어 그들 국가내에서는 나름대로 자료유통의 중

앙화가 가능할 수 있으나 대개의 국가들은 국가적 기관에서의 특별계획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들 자료에 대한 수집과 배포를 위해서는 이러한 국가적 수집의 계획외에도 자료의 발행자들로부터의 직접적인 적극적 지원책을 강구해야한다. 왜냐하면 이들 자료들은 자료의 성격상 이용률이 낮고 특수 배포로에 의해서만 배부되며 (英美지역에서는 이들 유형중 특히 보고서 자료들은 Microform으로 상품화하는 제도 및 취급하는 기관도 있다.[4]) 자료의 수명이 또한 단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써 우선 국가내의 자료에 대한 인식과 수집을 먼저 해결하고 점차 국제적 차원에서도 이용이 가능하도록 전개해 나아야할 것이다. 이러므로써 회색자료에 대한 서지 및 수집활동이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다면 이는 UAP사업으로써 남겨지는 좋은 성과라하겠다.

5. UAP사업과 도서관학 연구.

UAP와 같은 방대한 국제적 사업은 그 진행을 위한 방법의 모색도 중요하지만 그 방법의 적용 가능에 대한 진단 또한 반드시 전제되어야한다. 이미 강조한 바대로 이 사업은 대상으로하는 범위는 전세계이며 방법으로는 도서관 관계의 전 업무가 포함되어야하는 국제도서관 활동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진단과 문제점의 분석 및 실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을 위한 조사, 연구는 어느 한 도서관이나 또는 어느 한 국가의 사정이나 제도만을 대상으로 해서는 안된다. 적어도 이 사업은 공통의 목적을 위해서 전세계가 겨냥되는만치 고려되어져야 할 범위는 전세계의 모든 국가의 상황이어야 할 것이다. 어렵게 모색된 어떤 방법을 무리없이 효율적으로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각 국가들에 대해 파악한 현실진단에 이어 적용가능의 방법을 모색할 수 있는 분석적 접근이 뒤따라져야할 것이며 이러한 파악과 분석 및 방법 모색은 비교 도서관학적 측면에서 시도되어 져야한다. 이 비교 도서관학 연구야말로 UAP사업을 위한 어떤 계획보다 선행되어야하는 과정이다. 각 국가간의 현실적 제도를 진단하지 않고는 실제로 적용 가능한 사업계획이 나올 수 없으며 가령 계획이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현실이 조정되지 않은 계획은 그것의 효율적인 적용이 불가능할 것이다. 물론 비교연구에 포함되어져야 할 범위는 UAP 사업에 관계되는 도서관 관계의 제문제이어야 한다.

우선 UAP사업을 위해 마련되어져야 하면서 또한 비교연구되어져야할 대표적인 것을 들어 본다면 각 국의 출판 현황과 출판보급 현황(우편제도 포함). 수서관계의 제문제(수입정책 포함), 국내 상호대차제도의 현실, 도서관망 조직, 국가도서관의 기능, 자료의 보관정책(특히 귀중자료를 위한), 도서관의 국제 협력활동, 서지통정 및 공동협력 현황, 납본제도, 저작권법 등이 있겠다. 이와 같은 제문제에 대한 국제적 비교연구의 요구는 곧 비교도서관학의 활발한 연구를 의미하며 실제 이러한 활발한 연구를 통해서 UAP사업이 출발, 진행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해 준다.

Ⅲ. 결 어

사실 UAP사업을 도서관 발전과 연결시키는 일이란 자못 분명하고 엄연한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는 일에 불과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전세계적인 사회활동, 연구활동, 산업활동은 국제간의 자료유통을 절실히 요구하는 추세에 있으며 실제 대개의 발전 국가에서는 이러한 추세에 따른 적극적인 참여와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에서의 이 사업에 대한 전망은 아직도 요원한 실정에 놓여 있으므로 이러한 세계적 추세 및 우리의 현실에 대한 재인식과 강조의 의도로써 본고를 시작하였다. 뿐 만아니라 이 UAP사업을 위해서 요구되어지는 도서관 분야의 여러 활동을 분석하여 봄으로써 UAP사업의 효율적인 진행으로 인해 정상화되는 도서관 관계 부분을 알아 보고자하였으며 그럼으로써UAP사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이 사업은 도서관 관계의 내·외적인 전활동이 포함되므로 그 하나 하나를 일일이 들어 거론함이란 실로 힘든 일이다.

물론 前記된 주요활동 이외에도 이 사업으로 인하여 정상화될 수 있는 도서관의 기능은 여러가지가 있다. 즉, 과거자료의 이용 가능을 위한 보관 문제라던가 자료의 축적과 통신을 위한 기계기술의 발달 등 많은 대표적 사항을 더 들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 UAP사업은 그것의 효율적인 진행에 의해 반드시 도서관의 발전만을 남기는 유일한 사업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특히 출판문화가 저조한 개도국의 경우에는 자국(自國)의 출판사업을 발전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외국(발전국)의 도움에 지나친 의존을 하려는 경향이 생기는 등 이 사업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작용 또한 전혀 없는 바도 아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정보의 위력에 의해 사회 각 분야에서 여러가지의 개혁이 일어나고 있으며 또한 이 세계는 그 개혁을 요구하고 있는 바다. 이러한 때에 이르러 앞으로의 세계 무대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 더 나아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필요한 정보의 適時的 入手에 달려 있다고 말할 수 있겠다. 그러므로 정보자료에 대한 지금과 같은 인식과 수집의 방법, 공동협력의 성취, 국제간의 자료유통방법에 있어서 오늘날 요구되고 있는 개혁의 일환으로서 UAP사업은 더욱 요구된다고 생각한다.

이 사업의 효율적 진행은 도서관 자체의 발전에 있어 주요한 영향을 주는 결과를 낳는 반면에 또한 많은 전제 활동을 요구하고 있으므로 그것의 진행을 위한 적정한 계획이나 방법의 마련이 쉽게 이루어지기란 참으로 어려운 일이다. 그러므로 아직은 UAP사업만을 전적으로 위해 마련된 어떤 규정이나 국가간의 협약이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전세계를 통한 비교연구와 계획된 방법 모색에 이어 몇 국가에서의 파이로트 실험을 거친 세계적 적용 가능의 최종적인 방법이 마련되어진다면 앞으로 이 사업의 효율적인 결과는 기대하여 볼만 할 것이다.

---

1) Maurice B. Line. Universal Availability of Publications, Unesco Bull. Libr. Vol. 31, no. 3 (May-June, 1977) p. 145.
2) Unesco/IFLA International Congress and IFLA Post-congress on UAP; reports and meeting. IFLA Jl, Vol. 8, no. 3 (1982) : 339~347
3) Maurice B. Line. the Need for Improved Worldwide Provision of Publications, Unesco Journal of Inf. Sci., librarianship and arch. administration, Vol. 4, no. 2 (Jan.-Mar. '82) p. 15.

● 未納金을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本協會는 財政自立이 마련되지 못한 채 다만 여러 會員들이 負擔하는 會費와 出版物代金으로 살림을 꾸려 나가고 있는 형편입니다.

여러 분들도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오나 協會의 어려움을 깊이 理解하시여 未納된 團體會費와 個人會費 그리고 出版物代金을 早速히 納入하여 주시면 대단히 感謝하겠읍니다.